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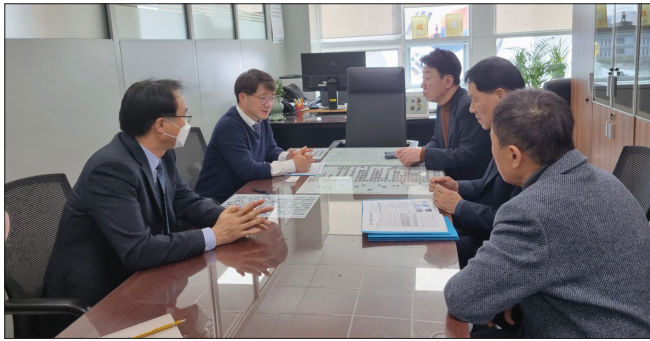
전주 대변혁 위한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우범기 시장, 세종정부청사 주요부처 방문해 내년도 예산 확보 필요성 적극 피력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의 대변혁을 이끌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전략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우 시장은 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작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국가예산의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를 상대로 민선 8기 시정 핵심 목표인 '강한 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주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우 시장은 14일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전복과 전주 발전을 이끌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4일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전복과 전주 발전을 이끌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요 사업들의 예산반영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우 시장은 건의한 주요사업은 △천년역사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후백제 역사문화의 연구·조사·보존·정비·활용을 위한 거점이 될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디지털 경제도시 견인을 위한 '전주 디지털 미디어융합밸리 조성' △호남권 대표거점 공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주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 △쇠퇴한 구도심의 도시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옛 금암고 일원 도시재생 사업' 등이다.

시는 올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전방위적인 재정분개로 인해 국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발

점 공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주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 △쇠퇴한 구도심의 도시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옛 금암고 일원 도시재생 사업' 등이다.

시는 올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전방위적인 재정분개로 인해 국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발

점 공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주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 △쇠퇴한 구도심의 도시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옛 금암고 일원 도시재생 사업' 등이다.

시는 올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전방위적인 재정분개로 인해 국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발

굴된 신규 국가예산 주요 사업들의 전북도 100대 중점사업 선정 및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예산 순기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 전략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우범기 시장은 지난달 국회를 찾아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홍익표 문체위원장 등 국회의원 10여 명을 찾아 2024년도 주요 현안 사업의 국가예산 반영 지원을 연초부터 발 빠르게 건의한 바 있다.

김인태 전주부시장도 지난 7일 국회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반영 지원을 요청하는 등 연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는 정부정책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설계에서부터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선정 후 타당한 논거로 부처실득을 통한 부처 예산안에 담는 시기별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주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한 신규 사업들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 한발 앞선 국가 예산 확보에 지역정치권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초등학생 머릿니 감염 유행률 추이 보고

건협 메디체크연구소, 국제 학술지에 연구 결과 발표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연구소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초등학생의 머릿니 감염 유행률 추이 관찰(Prevalence of head louse infestation among primary schoolchildren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wide observation of trends in 2011-2019)'라는 주제로 SCIE급 국제 학술지인 PHID(Parasites, Hosts and Diseases)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머릿니는 의용절지곤충의 하나로 머리에 붙어서 피부로부터 피를 빨아먹고 가려움증과 피부 질환을 유발한다.

여기에 발진티푸스, 참호열, 재귀열 등의 질병을 전파하기도 한다.

이들은 주로 집단생활을 하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감염되며, 약 10,000년 전의 고대 인간 미라에서도 발견된 오랜 세월동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2011~2019년까지 9년간 서울 3개 지역(서부, 동부, 남부)과 4개 광역시(인천, 대구, 부산, 울산), 9개 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지역의 초등학생 총 51,508명(남학생 26,532명, 여학생 24,976명)을 대상으로 국내 머릿니 발생 추이를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전체 유행률은 2.1%였고, 2011~2012년 2.8%에서 2019년 0.8%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성별로는 남학생 1.4%, 여학생 3.0%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저학년(1-3학년)그룹과 고학년(4-6학년)그룹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로 9년간 평균 감염률은 서울 남부가 4.7%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 3.1%, 경기도 3.0% 순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서부와 경상도가 0.7%로 조사됐다.

본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머릿니 평균 감염률이 서울 남부에서 가장 높은(4.7%) 반면, 서울 서부(0.7%) 및 서울 동부(1.6%) 지역에서는 비교적 낮다는 점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머릿니 감염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집단생활을 하는 국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들에게 건강 및 위생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머릿니 감염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건 종사자, 가정, 학교 및 정부의 협력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김영태 기자

학교 밖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로 나눔의 가치 실천

전주시, 자기주도동아리·전주시꿈드림 청소년단 운영

전주시가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주도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3 자기주도동아리'와 '전주시꿈드림 청소년단'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자기주도동아리는 전주시 꿈드림이 학교 밖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동아리 활동에

대한 욕구(56.5%, 113명)를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동아리는 올 연말까지 전주시의 다양한 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운영방식을 계획하고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플로깅(봄), 농촌체험활동(여름), 나눔(가을), 연탄봉사(겨울)' 등 봉사활동과 금암노인복

자관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청소년의 역할에 대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난 6일 위촉식을 갖고 오는 12월 말까지 '문화, 홍보, 인식개선, 기획, 예술' 등 5개 분야별 '전주시꿈드림 청소년단' 활동에 참여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력 및 직업교육훈련,

자립지원'은 전액 무료며, 건강검진, 동행 수검과 스마트교실(검정고시 준비반)도 운영되고 있다.

정혜선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배우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의 관문' IC 진·출입 입체교차로 재포장

전주시가 자동차를 타고 전주를 찾는 여행객에게 쾌적한 첫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전주IC 진출입로를 쾌적하게 재포장하기로 했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14일 총 3억3000만 원을 투입해 전주의 관문인 IC 진·출입 입체교차로에 대한 재포장공사를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주IC 진·출입 입체교차로는 중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으로, 겨우내 노면 일부가 파손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공사 구간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주IC △전주역 방향으로 각각 분기되는 나들목 양방향 도로 △동부우회도로에서 전주IC 진입 전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내려오는 도로 등 3구간이다.

구는 시민과 전주를 찾는 운전자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덕진경찰서, 교통방송 등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야간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편을 겪어왔다.

공사 구간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주IC △전주역 방향으로 각각 분기되는 나들목 양방향 도로 △동부우회도로에서 전주IC 진입 전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내려오는 도로 등 3구간이다.

구는 시민과 전주를 찾는 운전자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덕진경찰서, 교통방송 등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야간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주시 완산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추진

전주시 완산구는 깨끗하고 단정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사업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의 부착을 사전 차단하여 깨끗한 가로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054개의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가 설치됐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는 테이프나 풀 등이 붙지 않는 특수 소재로 제작됐으며, 광고물 부착을 사전 차단하고 기존에 부착된 광고물 때문에 지저분한 흔적이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상습적으로 광고물을 부착해 민원발생이 잦은 곳을 우선 선정하여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호응 및 만족도가 높다.

사업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새터로, 중화산로, 거마평로 일원에서 실시되며, 해당 구간의 전신주, 신호기, CCTV 등 가로시설물 등에 설치(약 400여개소)될 계획이다.

작됐으며, 광고물 부착을 사전 차단하고 기존에 부착된 광고물 때문에 지저분한 흔적이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상습적으로 광고물을 부착해 민원발생이 잦은 곳을 우선 선정하여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호응 및 만족도가 높다.

사업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새터로, 중화산로, 거마평로 일원에서 실시되며, 해당 구간의 전신주, 신호기, CCTV 등 가로시설물 등에 설치(약 400여개소)될 계획이다.

/조아록 기자

'이지콜센터' 월드컵경기장 이전

그동안 전주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에 도움주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됐던 이지콜센터가 월드컵경기장으로 이전한다.

이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본격 가동되며 이지콜센터 운영장소가 철거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월드컵경기장에는 56대의 택시를 한 번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협소했던 사무공간이 이전으로 인해 두배이상 확장됐기에 직원 모두 환호하는 분위기에 놓인 장소다.

앞으로 전주시시설공단은 이전에 따른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와 머리를 맞대기로 협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낮은 점근성의 활용도, 이용객 대기시간 단축, 예약률 배차 간격 조정, 교통약자 불편 최소화'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전주시시설공단은 이용객들과의 소통 목적으로 운영 중인 SNS의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이지콜' 택시

활성화를 통해 정보 제공과 민원 해소에 더욱 집중한다.

조용의 교통약자지원부장은 "이지콜센터 이전에 따른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며,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콜 택시는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 등 4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